

여야 4·15 총선 공약 살펴보니

사회적 약자 지원책 '붓물'

민주, 창업기업 세무 대행 등 제공... 신산업 창업 1억 지원도 정의 "20세 되는 모든 청년 '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할 것" 노인 일자리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다채

여야는 4·15 총선 공약에서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겨냥한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정치참여 강화, 노인 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하다.

▲청년 창업·일자리·생계 지원 약속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대행과 특허 수수료 바꾸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자를 발굴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에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 확대 계획을 세웠다. 경력단절 여성과 학기종료와 기관을 매칭해 연구개발(R&D) 분야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래통합당은 청년 벤처생태계 조성 공약에 비중을 뒀다. 정보통신기술(ICT) 종사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년스타트업공제제 신설을 약속했다. 공제회를 통해 종사자 근로

상담과 건강관리, 그리고 노후지원까지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양육시설 퇴소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학자금대출 탕감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대 가는 청년에게는 병사 월급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공약에 넣었다.

▲청년 정치참여 확대 공약도

민주당은 청년 정책 수립, 이행,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 정치참여 강화를 위해 청년 후보자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청년 후보자 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하향 조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선거권 연령은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직선거법상의 미

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했다.

▲노인 표심 노린 공약도 다양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하겠다고 자신했다. 또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 모든 노인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 실버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복지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통합당은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2배 이상, 26만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시니어 전문 보육 인력 일자리 3만개 창출 계획도 밝혔다.

정의당은 노인 친화 보행환경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인복지시설 주변과 전동시장 등 노인 이용이 잦은 시설 주변 도로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농어촌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횡단보도 내 '보행섬' 설치 등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뉴스



'도장은 잘 찍히나?' 4·15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를 설치하며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군산 통합당 후보 ‘중국 유곽’ 공약 분노”

참여차지 군산시민연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군산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중국 유곽 조성' 공약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참여차지 군산시민연대는 9일 '미래통합당 군산시 후보자 공약을 비판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후보가 '군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군산 차이나타운'을 제안하고, 5개 조항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공약 가운데 '중국 유곽'이라는 내용을 보고 무지를 넘어 군산역사를 조롱이라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곽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에 관(官)의 허가를 받아 일하는 창녀들을 두고 손님(賈客)을 맞아 매음(賣淫) 행위를 하게 하는 집이나 그 집들이 모여 있는 구역을 이르던 말"이라며 "이런 공간을 군산에 조성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연대는 또 "군산은 성 매매집결지로서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군산 유곽', 미군주둔으로 '군산 아메리카타운', 대명동·개복동 성 매매집결지와 화재 참사로 많은 희생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 후보 공약은 역사 인식의 부재를 넘어 여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마저 없다"고 꼬집었다.

"30~40대 폼파, 세월호 막말로 국민으로부터 질타받는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를 단순한 경솔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당의 품위에 맞는 대책을 군산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

“임대로 안정화·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

민주·더시민, 주거·부동산 및 어린이·여성 안전 공약 발표

릴레이 공동 총선공약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9일 주거·부동산 공약과 어린이·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조성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권지웅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거·부동산 공약 3가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대로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정기구 상설화 등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조정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

어린이 안전 공약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태호 엄마 이소현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가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 후보는 작은 봄 아들 '태호'를 보내고 누구보다 절실하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부모안심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시설 개선 등 국가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단속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대폭 증대하며 법규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안전 공약은 김영주 민주당 의원과 권인숙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가 발표했다. 권 후보는 1980년대 부천경

찰서 성고문 피해자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제정'을 공약하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통·접근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구체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24시간 수사지원 핫라인 구축, 사이버수사팀 증설 및 전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촬영물의 무제한 유통을 차단하고 조속한 삭제에 대한 대규모 전담기관 설립 등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제 강간연령을 높이고, 유인행위부터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스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이강래, 민주 도당 선대위와 총선승리 결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남원·임실·순창)는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밝혔다.

이 후보측에 의하면 이날 전북도당 선대위는 더불어시민당과 공동공약 발표와 전체회의를 갖고 "전북현안 해결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넘는 제1당을 만들자"라고 다짐했으며, 특히, 남원 최대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전북 10개 선거구 중 남원임실순창 지역이 가장 어려운 곳"이라며 "지금 부동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하고 있는 만큼 선거에서 꼭 승리해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사 후 남원 공설시장으로 이동 후 집중유세에 나섰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사전투표 불법행위 엄중 처벌해야"

무소속 이용호 후보(남원·임실·순창)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관련, 선관위에서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사법당국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남원, 임실, 순창의 경우 대부분이 농촌·산간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일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자 이 같은 정황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선거운동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사전투표일에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골프트로피·상패제작전문
국제로타리용품 대리점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팜플렛 / 리플렛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원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